

안전은 우리의 건전성 척도



이 영 순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잘나가는 집안을 보면 가족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활달하며 활기차다. 이에 비하여 가세가 기울어져가는 가정은 우환이 있거나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어딘지 혼란스럽고 활발하지 못하다. 기업과 국가도 마찬가지다. 날로 번창하는 회사나 성공한 나라는 사고가 거의 없고 구성원들 사이에 협조적이고 질서가 있다.

모든 경영활동에 안전관리가 가미된다. 그러나 사세가 기울어져가는 기업이나 실패한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가 따른다. 이는 사고로 인해 기업이나 국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나 국가가 어려워니까 안전관리에 투자나 신경을 못 쓰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회사나 국가에서의 안전투자 부족이나 안전 경영에 대한 무관심은 위험상황을 초래하고, 이는 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와 같이 안전관련 사고나 작업관련 질병이 빈발하는 상황은 가정이나 기업 또는 국가를 막론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안전은 우리의 건전성의 척도이다. 사고와 건전성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도 전후하여 유난히도 중대사고가 많았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그것이다. 그 후 몇 년 뒤에 우

「안전관리에 투자되지 않고, 축소 방침은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의 악순환 시작이다」

「갈등구조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인류복지증진의 신념이 결여된 과학기술은 큰 사회악을 가져다 준다」

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산재 통계와 국가 경제지표를 보아도 대체적으로 사망재해가 높아지면 국가에 어려움이 따랐다.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한건의 사고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까지 있다.

안전 관련 사고는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과도 관계가 있다. 즉, 안전 관련 사고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불신과 부조화 그리고 도덕불감증이나 각종 갈등 등 사회적 위험과도 크게 관계한다.

요즈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갈등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듯하다. 세대간의 갈등, 이념 갈등, 문화의 갈등, 종교적 갈등, 빈부갈등 등 온갖 갈등이 칼날을 세우고 있다. 오로지 자기만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고 남의 생각은 잘못 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강하다. 직업윤리나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산다는 협력이나 상호 배려하는 정신도 없어지고 오로지 실용적인 처세술이나 돈벌이를 위한 논리와 과학기술에만 신경을 쓰는 듯 하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옛날에 볼 수 있던 상부상조와 윤리의식을 퇴조시킴은 물론 법과 질서를 파괴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나라의 장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과학 기술은 인류복지 증진에만 사용하겠다는 신념 없이 이용된다면 인류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악한 도구일 수도 있다.

의사가 인간애나 생명의 존엄성을 갖지 않은 채 의료 활동을 편다고 생각해 보자. 이는 아마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갈등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큰 사회악을 가져온다. 최근 강력범죄 증가율은 40%를 선회하고 자살자의 숫자가 연간 13,000여명이나 되며 음주로 인하여 출근에 지장을 받는 직장인의 수는 정규 근로자 전체의 1/4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화가 후퇴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데서 오는 혼란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은 우리의 도덕과 감성을 소멸시키고 삶의 본질을 위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구조나

「안전관리는 최신 과학기술과 각종 관리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질서, 상호협력 정신, 존중, 배려 등 인류애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시킨다」

「갈등 구조를 치유할 최선책 안전관리활동이다」

사회적 병리현상은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옛날의 전통이나 도덕 또는 문화는 그 빛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새로운 것을 규범으로 한 가치관과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가 발달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경제는 경쟁을 강조함에 비하여 정치의 측면에서는 균등 분배와 누구나 동일한 의무·책임을 강조하는 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자연스런 조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느 쪽의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 생산(경영) 활동과 안전관리 활동도 같은 논리로 그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상호간에 상대의 중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하니 이 둘은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공동 관심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경영활동과 안전관리의 공동관심사는 새롭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상호 존중과 협동, 인류애(건강과 건전성) 그리고 질서와 창조를 존중하는 문화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조화는 문학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이는 종교가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인류애를 통해서 즉, 사랑의 실천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모두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구조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관리 활동이다. 여기서 안전관리 활동이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위험을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기술과 관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두 찾아내어 인지하고, 찾아낸 위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여,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하여 위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해나 손실 또는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원리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려면 최신 과학기술과 각종 관리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질

「안전관리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작은 배려와 노력이 큰 것을 가져준다」

「안전관리는 현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이다. 안전의 원리로 부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때이다」

서와 순서 지키기, 상호 협력 정신, 상호 존중과 배려 등 인류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관리는 건강과 안전은 물론 동료를 돌봄으로부터 시작되며 사회적 공동관심 요소가 고루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건전한 사회를 위한 문화형성으로 갈등구조를 화합과 협력의 구조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관리는 일부 귀찮고 비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찮음과 비효율이 때로는 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되어 더 큰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윤석철 교수는 이를 우회축적의 원리라고 하였다. 공중에 있는 매가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감을 향하여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중력가속도를 이용하여 수직강하하면서 힘을 축적한 후 사냥감에 큰 속력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어 우회 축적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위험을 찾아내어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늦어지거나 손해를 보는 듯 하다가도 종국에는 힘을 받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가의 귀한 생산 설비나 제품이 잿더미가 된 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한번 저질러진 사고는 우리의 슬픔을 헤아려 주지 않음은 물론 영원히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작은 배려와 노력이 큰 것을 지켜준다는 원리를 우리는 잊을 때가 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위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과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안전관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안전관리는 질서를 지키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 모두 안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때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영위하자. 